

○○ 회원사 동정

國際電線



「비전·혁신 워크샵」 개최

國際電線(代表: 裴恩出)은 경영혁신을 통한 새로운 국제전선 만들기과 중장기사업재조명을 위한 「비전 앤드 혁신 워크샵」을 지난 9일부터 전사원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특히 이번 워크샵 개최는 지난 4월 具本茂 LG 그룹회장 동생인 具本綾씨가 LG전선이 소유하고 있던 국제전선 주식 전부를 양수받으면서 자연적으로 경영권도 인수받게 되는데 따른 이미지 쇄신과 전사적인 결속을 다진다는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9~10일 본사를 비롯 16~17일 군포 전력선공장, 23~24일 전주통신선공장 등에서 각각 개최된 국제전선의 「비전 앤드 워크샵」에서는 비전 중장기 경영전략 △하반기 대비 중점사업 등에 대한 토론회와 당면경영과제 해결을 위한 분임조별 토의결과가 발표되었다.

한편, 국제전선은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올해는 지난해 매출 1800억원에 비해 3백억 정도 늘어난 2100억원 규모는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大韓電線



「한양 아카데미 엑스포 '95」 참가

大韓電線(株)(代表: 兪彩濬)는 산학협동의 차원에서 일반 기업체와 한양대학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1회 “한양 아카데미 엑스포 '95”에 대한전선관을 마련하고 초고압케이블, 광통신케이블, 광분배함, 155Mbps 동시식광전송장치, 케이블 TV용 컨버터 등 주요장비와 시스템을 전시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기업홍보관을 마련해 운영했다.

지난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한양대 서울 캠퍼스에서 마련된 이번 엑스포에는 대한전선 외에도 삼성, 현대, 대우, LG, 선경, 기아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단순한 기업위주의 전시회에서 탈피해 대학연구능력과 기업의 기술력이 결합된 차원에서 전시회 및 세미나가 마련되는 등 산학협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한전선은 광통신의 발전방향, 초고속 정보통신망, 케이블 TV 사업과 회사의 현황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해 관객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LG産電



경제형 모터보호기(IMC) 개발

LG산전(代表: 李喜鍾)이 기존 제품의 통신기능을 제거하여 가격을 대폭 낮춘 경제형 모터보호기(모델명: Compact-IMC)를 개발, 지난 6월말부터 양산에 들어갔다.

모터보호기는 모터를 제어하는 MCC(Motor Control Center)에서 모터에 과전류가 흘러서 전선이 타버리는 소손사고, 전선이 단선되어 발생하는 결상사고, 결상상태보다 더 큰 전류가 외부로 새는 지락(누전)사고 등을 감시·예방하여 모터의 운전상태를 항상 최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기기로 MCC의 두뇌부라 할 수 있다.

LG산전이 지난 1년간 2억원을 투자하여 개발에 성공한 이 제품은 모터의 운전상황을 중앙에서 파악·통제하도록 하는 고가의 통신기능이 현장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 고가의 통신기능을 없애고 모터의 보호기능 및 제어기능을 강화하여 사용자의 비용 절감과 모터보호기의 효율성을 증대한 경제형 모터보호기이다.

통신기능 제거와 함께 LG산전의 경제형 모터보호기는 MCC 내부의 Sequencer에서 사용되는 접점, Timer, 그리고 여러 배선을 MCC 내부가 아닌 모터보호기에서 처리한 일체형으로 설계하여 생산원가의 절감은 물론 MCC 내부의 복잡함으로 인해 생기는 고장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됐다.

이 제품은 가격 측면의 개선뿐만 아니라 성능면에서도 기존제품보다 향상되어 사용자가 제품 사용

시 최대 만족을 거둘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기존의 아날로그방식에서 한단계 발전된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감시·제어가 가능한데, 가령 지락전류 검출시 Digital Filter를 사용하여 지락전류 검출에 있어 과거보다 신뢰성이 있고, 운전 상태를 화면에 표시해주는 Display 기능이 강화되어 사용자가 기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제품에 있는 직입기동외에 Y-Δ 기동, Inductor기동을 추가하여 다양한 모터 기동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고, 정전시 모터를 자동으로 재가동시킬 경우 한꺼번에 여러 모터를 가동시키면 전류가 갑자기 증폭되어 과전류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 지연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재가동시키는데 이때 지연시간을 60초에서 300초로 확장하여 여러 모터를 보다 안정되게 재가동시킬 수 있다.

LG산전은 이번 경제형 모터보호기 개발을 통해 다양해진 고객 요구에 대응하고 기능대비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확장해 갈 방침이다.

한편, LG산전은 금년 7월부터 '98년까지 모두 1천억원을 투자하여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등 5대 도시에 7개 대규모 물류센터를 건립한다.

LG산전은 7월에 서울 등촌동 물류센터 준공을 시작으로 '96년 부산, '97년 서울 강남과 강북·대구, '98년 대전과 광주 등에 7개의 물류센터를 건립하는데, 이같은 물류센터 건립계획이 오는 '98년 차질없이 이루어지면 LG산전 전국 5개 지역에 7개 물류거점을 확보하게 되어 전체 매출의 80%에 해당하는 물량(현재는 약 40%)을 현대화된 물류센터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물류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물류센터 건립은 오는 9월 3사(LG산전·금성계전·금성기전)가 합병함에 따라 공장이 2개에서 6개로 늘어나고, 매출규모 또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외형상의 큰 변화와 동일제품의 이원관리로 초래되는 불필요한 물류손실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물류 측면에서의 통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LG산전은 물류합리화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물류센터 건립지역을 전국 각지의 6개공장(창원, 청주, 천안, 오산, 주안, 김포)과 영

업소, 고객 사이를 최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지역적 입지조건에 따라 선정하였고, 특히 '96년 완공되는 부산 물류센터는 국내 물류서비스 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유럽, 미국 등 해외로 수출하는 제품을 보관·관리하는 수출 물류기지 역할까지 함께 하여 7개 물류센터중 최대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또한 '96년에는 7개 물류센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물류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 회사내 물류동향과 정보를 공장, 물류센터, 영업부서, 경영진이 함께 공유·활용토록 하여 생산, 배송, 보관, 판매의 물류체계 효율을 높임은 물론 그동안 만족스럽지 못한 물류서비스를 받은 고객들에게 양질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LG산전은 물류센터 건립을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96년 1단계 계획이 마무리되면 서울과 부산지역에서 각 사업Unit가 제품별로 관리해온 창고 개념의 물류체계를 통합 관리할 수 있어 임차료, 인건비, 운송비 등의 물류비용 약 20억원의 절감효과는 물론 시간지정납입 및 다빈도배송이 가능해진다.

물류합리화 계획의 최종년도인 '98년에는 '94년 대비로 10%의 인건비 절감, 보관효율 45% 향상, 차량대기시간 50% 단축, 제품 납기준수율 99% 등 현재의 물류체계와 비교할 때 파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며, 물류비용이 '94년 기준에서 약 100억원 가량 절감이 기대되는데 이에 따른 원가 절감 및 R&D 투자로 제품의 국제경쟁력이 한층 강화되어 경영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용 전기·전자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국내기업이 물류혁신을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LG산전의 물류센터 건립을 계기로 동종업체의 물류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三和技研



모터개폐기 개발

三和技研(株)(代表: 金仁錫)는 국립공업기술원과 공동으로 모터의 개폐 및 보호기능이 우수한 전자식 過電流 계전기를 내장한 모터개폐기(MMS-EOCR)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했다.

지난 '93년 6월부터 공업기반기술 개발과제로 4 억원(정부출연금 2억여원)을 들어 개발한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를 내장한 모터 개폐기는 국립기술원이 초소형 변류기(CT) 및 솔레노이드에 관한 연구를, 삼화기연연구소는 제어회로와 연동되는 메커니즘 및 노이즈 방지회로 등에 관한 연구를 각각 분담해 개발 완료했다.

국내 처음으로 차단기, 전자접촉기, 열동형 계전기, On/Off스위치 등 4가지 기능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내장한 이 모터개폐기는 외국제품과는 달리 전자제어회로로 구성된 정지형 계전기를 사용, 복합적인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밀도를 크게 향상시켰다는데 특징이 있다.

현재 국산제품은 차단기, 전자접촉기, 열동형 계전기, On/Off스위치 등 4가지 기능을 단순조합해 과전류 및 短絡전류 등에 의한 모터 소손을 방지하고 있으며 선전 외국에선 독일 지멘스, 미국 엘런브래들리社 등에서 이들 4가지 기능을 하나의 프레임에 내장한 모터개폐기를 개발 생산하고 있다.

LG電線



經營憲章 제정, 선포

LG電線(株)(代表: 權攸久)는 회사경영의 기본 원칙과 2000년대 세계 초우량 기업이 될 것을 내용으로 하는 「LG전선 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최근 LG트윈타워 본사와 안양·구미 등 각 공장에서 대대적인 선포식을 가졌다.

LG전선은 그동안 21세기를 향한 회사의 비전을 설정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 활동으로 회사는 이제 성년의 모습을 갖추었으나 지금까지 회사와 경영에 대한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정립한 적이 없었고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번에 경영헌장을 제정·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LG전선이 발표한 「LG전선 경영헌장」은 前文을 비롯해 선전 CU, 사업전개 방향, 사업부·조직과 개인 등 모두 8개 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에는 최고의 기술과 서비스로 고객과 함께 발전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하고 주주에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사

명을 담은 등 LG전선이 추구하는 이상과 기본 이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LG전선 경영헌장은 조직의 발전을 위해 일방적인 개인의 희생은 강요하던 과거의 기업운영방식을 배제하고 개인은 조직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개인이 긍지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창의와 공정한 평가가 뒤따라야만 개인의 비전과 조직의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電氣學會



7월 20일부터 하계학술대회

大韓電氣學會(會長: 韓송엽)는 오는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대전 대덕 호텔 롯데에서 「'95년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 電氣學會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될 논문은 지난 6월 접수를 마감했다.

한편 同학회 컴퓨터 및 인공지능연구회는 지난 5월 12일 광운대학교 공과대학에서 「'95년도 신경회로망, 인공지능 및 퍼지합동학술발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電機工業振興會



중전기 기술개발기금 본격 운영

韓國電機工業振興會(會長: 李喜鍾)는 지난 6월 1일 무역센터에서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영 심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용 심의회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용 요령(안)을 심의하고 향후 기술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용 심의회는 韓國電力公社에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중전산업의 기술개발 추진을 위하여 지난 '91년~'95년까

지 약 1천억원 규모의 R&D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기술개발 완료후 지원금액의 50~60%를 기술료로 한전에 상환케 되어 있는 것을 민간기금 형태로 중전기 기술개발기금으로 조성, 한국전기공업진흥회에서 관리·운영토록 확정됨에 따라 이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앞으로 중전기 기술개발기금 운용 심의회는 기술개발기금의 투자효율 극대화와 중전업계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기금의 운영·관리 방법과 사업자 선정, 사업자별 지원액 결정 및 기금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활동하게 된다.

電氣工事協會



日本 '95電設工業展 참관

朴芸熙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을 비롯한 한국전기신문사 임원진과 한국전기공사협회 재경지부장, 해외협력위원 등 日本을 방문한 17명은 지난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日本東京에서 열린 제43회 日本電設工業展을 참관하고 ▲아끼하바라 전자상가 및 스프링 배전관련기자재상가 ▲日立(히다찌)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을 각각 견학했다.

한편 朴 단장과 日本방문단은 5월 27일 東京에 있는 全日本전기공업조합연합회를 방문, 시노자키겐타로 全日電工連회장대행부회장 등 日本대표들과 「韓·日電氣工事協議會」를 갖고, 양국 우호·협력을 다지는 한편 고베현의 지진참사를 위로하는 재해위로금을 전달했다.

이 협의회에는 韓國측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 및 한국전기신문사관계자 16명과 日本측에서 관동전기공사공업조합회장, 마루이 全日電工連사무국장 등 4명이 각각 兩國대표를 배석했다.

全日電工連회관 迎호텔에서 오찬을 겸한 이번 협의회에서 朴회장은 「환대에 감사하며, 아세아태평양전기공사연합회(FAPECA)에 日本전기공업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은 유감이다」고 밝히고 「예기치 않는 고베현의 지진 참사를 위로하며 韓·日電氣工事協계의 상호 협조와 유대의 진전을 바란다」

는 요지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신노자키 全日電工連회장대행은 「日·韓전기공업계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고베현의 참사에 관심을 가져준데 매우 감사하며, 재해위로금을 고베현의 재해민에게 전달하겠다」를 회답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86년 9월 서울에서 대만·하와이·홍콩 등 10개국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세아태평양지역 전기공사협회 연합회인 FAPECA를 결성하고 초대 회장을 지내는 등 국제적인 전기공업계의 협력을 주도해 오고 있다.

韓·日電氣工事協議會는 '84년 6월에 결성됐으며, 이보다 먼저 대만과의 韓·中電氣工事協議會는 '82년 8월에, 韓·홍콩은 '82년 9월에, 韓·하와이는 '82년 11월, 그리고 韓·인도네시아는 '85년 10월에 각각 韓國주도로 협의회를 결성한 바 있다.

現代重工業



리비아 大水路工專用 전장품 공급계약 체결

현대중공업(주)(대표:김정국) 중전기사업본부 리비아 대수로 2단계 공사에 소요될 전력제어장치(Power Control Unit) 484Sets에 대한 국제입찰에서 영국의 HAWKER SIDDELEY, ELEQUIP 및 이태리의 EUDOSIA 등 6개업체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지난 3월 최종공급업체로 선정되어 최근 미화 3천만불에 계약체결하였으며, 금년 9월부터 1998년 3월까지 분할 납품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의 Power Control Unit는 지하수를 Pumping하는데 필요한 전력공급 및 제어장치로서 3.3kV MCC와 PLC Panel이 내장되어 있으며, 이 제품의 옥외 Housing설비는 냉매를 이용하여 외부의 전원이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Passive Cooling System을 적용한 최첨단 장비로서 리비아 사하라 사막의 악조건속에서 무인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다.

현대중공업(주)은 이번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향후 진행될 3단계공사용 전력제어장치(Power Control Unit)의 수주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